

민주연구원 “안정적 K-주식시장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”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3월 26일(목), “안정적 K-주식 시장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”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- 이재영 원장은 “K-주식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고 꿈이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5,000시대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.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코스피 5,000시대를 넘어 안정적 K-주식시장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- 이번 정책브리핑은 안정적 K-주식시장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고 필요성을 담았다.
 - 첫째, 선진국 대비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을 높여 주식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퇴직연금 기금화 마무리,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꾸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
 - 둘째, 개인투자자의 투자 능력 제고로 주식시장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교육 의무화
 - 셋째,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상품을 제공하여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금융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
 - 넷째, 거시경제 상황에 우리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책으로 거시경제상시점검 TF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.
-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“지금 우리는 코스피 5,000시대에 살고 있고, K-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실행된다면, 앞으로 코스피 6,000이 일상이 되는 시대도 다시 도래할 것이다”라고 덧붙였다. 끝.